

2025 나주영산강축제서 '인공태양 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눈높이 맞춘 과학 체험... 핵융합 원리와 첨단 기술 이해 미래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알리고 연구시설 유치 공감대 확산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인공태양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과학문화 확산과 연구시설 유치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대해 시민들과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22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체험부스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인공태양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대표적으로 '초전도 자석 마법 빛자루 만들기' 체험은 인공태양의 핵심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며 핵융합과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다.

석유와 석탄 등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특히 연료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가동이 멈추는 특성 덕분에 폭발 위험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점해 추진하는 등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핵융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기술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느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해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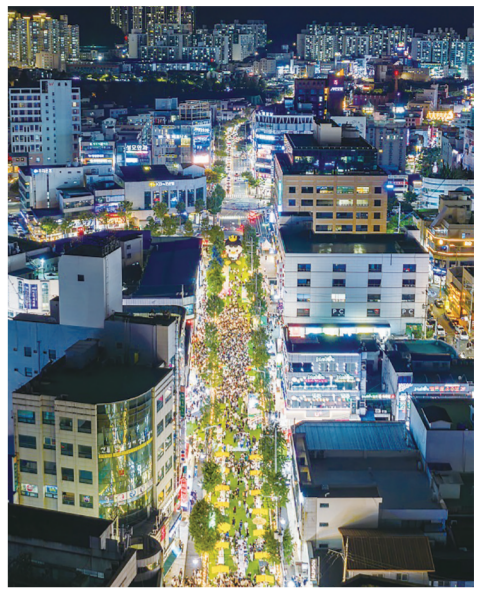
나주/이명열 기자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주말의 광장' 순천 도심이 축제로 살아났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연향동 패션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젊은이들의 해방구)」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청년의 날'과 맞물려, 이틀간 약 8만 명이 방문했다. 페이백 이벤트에는 970여 명이 참여해 그 결과, 1억 원이 넘는 소비가 이뤄져 준비된 상품권이 대부분 소진될 만큼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축제의 시그니처인 '잔디로드'는 차가 다니는 복잡한



연향동 거리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즐기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반려견과 가족, 연인들이 함께 거리를 거니는 모습은 일상 속에서 즐기는 축제 문화를 잘 보여주었다.

루미팡이의 사진부스는 인화지가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10미터 규모의 대형 조형물 '루미'는 현장을 대표하는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다. IP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대중성이 충분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향후 콘텐츠 확장 가능성까지 입증했다.

주요 콘텐츠엔 엔딩로드쇼, 캐릭터 팝업&전시, 크리에이터쇼를 비롯해 오락실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콘텐츠 놀이터가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청년들이 참여한 플라마켓과 먹거리 부스는 준비 물량이 동날 정도로

시민들의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졌다.

더불어 이번 축제는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으며, 특히 가수 로이킴의 공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시민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 덕분에 안전하게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상인들은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활기찬 거리 분위기와 시민들의 발걸음 자체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주말의 광장은 이제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 생활 축제"라며, "앞으로도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과 상인이 함께 호흡하며 지역경제와 문화가 동시에 살아나는 전국 유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담양군, 군수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공감의 날 '마주 온(溫)데이' 새내기 직원과 자유로운 대화로 현장 목소리 청취

담양군은 지난 22일 공직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으로 조직 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군수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공감의 날 '마주 온(溫)데이'를 운영했다.

'마주 온데이'는 매일 군수와 직원이 직접 마주 앉아 애로사항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9월에는 실과단소의 새내기 직원 2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느낀 생각과 건의 사항

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도 매월 '마주 온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직급과 부서를 아우르는 소통을 이어가며, 정책 개선과 함께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여러분은 군 행정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라며 "군민을 대할 때는 친절을 기본으로 삼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내기 직원들의 신선한 시각과



솔직한 목소리는 긍정 혁신의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양시, '2025년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시민이 만드는 정책으로 다함께 UP!, 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광양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5년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명칭은 '광양시 정책 아이디어(UP) 공모전'으로, 시민들의 삶을 응원하고(Cheer up),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Build up), 광양시가 한층 더 높이고 도약하는(Level up)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주민생활,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민생규제 개선 방안 ▲AI·공공빅데이터 활용 시책 ▲기타 광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다.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전자우편과 광양시 모바일 앱 'MY 광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과 세부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 항목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실시 가능성 ▲적용 범위 ▲노력도 6가지이며,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금상(1명, 100만원) ▲은상(1명, 70만 원) ▲동상(2명, 각 50만 원) ▲장려상(3명, 각 30만 원) 외에도 노력제안 10건에는 각 10만 원, 추천을 통해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이 지급된다.

정용균 기획예산실장은 "채택된 우수 제안은 단순 참고용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 항목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실시 가능성 ▲적용 범위 ▲노력도 6가지이며,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금상(1명, 100만원) ▲은상(1명, 70만 원) ▲동상(2명, 각 50만 원) ▲장려상(3명, 각 30만 원) 외에도 노력제안 10건에는 각 10만 원, 추천을 통해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이 지급된다.

정용균 기획예산실장은 "채택된 우수 제안은 단순 참고용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진도군, 지역 중심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2025년 60억 원 투입...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 10월 개최

진도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총 198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문화사업을 본격 시작하며,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을 지향점으로 삼아, 전통 민속예술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발전시키고, 문화 기반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은 ▲전통예술 전공자와 함께하는 전통예술 교육 프로젝트 '남도명인예학당' ▲지역 민속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진도형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는 '스튜

디오 진도' ▲진도의 민속예술을 알리고 확산하는 대표 공연 프로젝트 '진도아리랑 유람단' ▲원도심 점포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삼락가게' ▲삼락가게와 연계한 문화교류 장터 '삼락장터' ▲주민과 생활문화 예술가가 함께하는 창작 활동 '예술일상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진도군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2025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며 국내외 관람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축전에서는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곡, 진도북춤, 다시래기 등 진도의 대표 민속예술과 함께 안동 하회별신굿, 강릉 단오등 등 국내 주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군, 공직자 힐링·자기성찰 위한 대원사 템플스테이 성료 명상·차담·케이크 만들기 체험으로 심신 자유·협력의 가치 되새겨

보성군(군수 김철우) 공직자들이 산사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2회에 걸쳐 이틀간 지역 사찰인 보성 대원사에서 "나는 절로, 나를 위한 힐링 2025 공직자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직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첫 일정은 요가 수업으로 몸을 이완한 뒤, 대원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참선과 명상, 스님과의 차담, 사찰 산책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균형을 찾았다.

2일 차에는 보성심상농원에서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지역 농가가 운영하는 체험형 공간인 심상농원은 농산

물 가공과 체험활동을 접목한 곳으로, 공직자들은 케이크를 함께 만들며 동료 간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체감했고, 지역 농업과 연계된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참가한 한 직원은 "산사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케이크 만들기 체험으로 동료들과 새로운 소통의 즐거움을 느꼈다"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쫓기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수만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알려고 싶은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려고 있다는 것**

나보다 원대 사물을 만드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은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에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알았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한 것** **만드는** **기려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잠시** **우울하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평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득난**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행**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리면** **그**

좋은 거라면 **우연** **이**

우연이나 우연 **이**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